

# 순천시, 미래 3대 경제축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한다

## 협력테이블·중장기 종합계획 착수보고회 개최 융복합 성장 전략 구체화·지역 소멸 위기 대응

순천시가 그린바이오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중장기 종합 계획에 들어갔다. 6일 순천시에 따르면 최근 순천시미래생물센터에서 ‘순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중장기 종합계획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와

관계부서 간 협업 강화를 위한 ‘협력테이블’을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순천시가 미래 3대 경제축의 하나로 중점 추진 중인 그린바이오산업의 명확한 비전과 로드맵을 설정하고, 이를 실

행하기 위한 부서 간 실질적 협업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보고회와 협력테이블에는 미래산업국을 비롯해 문화관광국, 청년교육국, 농정혁신국, 농업기술센터, 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소,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등 시 관계부서와 유관기관이 총출동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순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중장기 종합계획 착수보고회에서는 본격적인 운영 시작에 앞서 지역 특화 자원을 활용한 단계별

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 그린바이오 거점단지 유치 전략, 연관 기업 유치 및 전문인력 양성 로드맵 수립 방향 등 향후 10년을 내다보는 핵심 연구 과제와 전략적 수행 계획이 보고됐다. 이어진 협력테이블에서는 종합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앵커기업 연계 체험관광 및 치유산업 발굴, 지역민 수혜 중심의 소득 창출 모델 개발, 유통구조 혁신을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 그린바이오 지식산업 협력체계 구축 등 부서관

융복합 핵심 과제들을 심도있게 다뤘다. 시는 이번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그린바이오를 농업·관광·치유·교육·유통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융복합 성장 전략’으로 구체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소멸 위기 대응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제 활력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특히 이번 협력테이블을 기점으로 부서별 역할을 구체화하고, 그린바이오 육성 종합계획 수립, 신규 공모사업 공동 대응,

기업 수요조사 등 단계별 실행체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순천형 그린바이오산업의 기반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그린바이오산업은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넘어 순천의 산업지도도를 새롭게 그릴 미래 전략의 핵심이다”며 “부서간 경계를 허무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지역경제의 판을 바꾸고 시민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 광양, 제2차 공공기관 유치 총력...특화산업 연계 기관 발굴

### 이전 정책 대응 방안 논의 주거·교육 생활인프라 확충

광양시는 최근 시청에서 ‘광양시 공공기관 이전 유치 민관협의회’ 첫 회의를 열고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김정은 광양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진행됐으며, 광양시의회 의원과 산업·경제·교육·언론 분야 관계자, 관계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광양시의 특화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유치 대상 기관 발굴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대응해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ETEP),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한국영상자료원 등 7개 기관을 검토했다. 회의에서는 기관 유치 타당성과 지역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철강·석유화학·이차전지 등 국가 핵심 산업이 집적된 광양만권의 산업 기반과 항만·물류 인프라를 활용해 관련 공공기관을 전략적으로 유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지역난방공사 등 추가 유치 대상 기관에 대한 검토 필요성도 제기됐다. 위원들은 공공기관 이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관 임직원과 가족이 안

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정주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며 주거·교통·교육·의료·문화 등 생활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유치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정은 권한대행은 “공공기관 유치는 지역 산업과 연계한 미래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핵심 과제”라며 “민관 협력을 통해 광양시의 장기 발전을 이끌 실질적인 유치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kkkjin@gwangnam.co.kr

### 구례, 산림복지 프로그램 운영 어린이집 유아·학부모 대상

구례군은 최근 삼진강수달생태공원에서 전남동부지역 어린이집 유아와 학부모가 함께하는 산림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산림복지진흥원과 복권위원회 복권기금 녹색사업의 하나로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체험형 숲 교육을 통해 자연과의 교감을 확대하고 정서적 유대감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전남동부지역 어린이집 학부모 참여사업인 ‘수달과 함께하는 별자리 여행’은 지역 생태자원인 수달을 주제로 다양한 숲 체험 활동을 결합한 가족형 산림교육 프로그램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산나물을 활용한 ‘산나물 김밥 만들기’, 나무에 오르며 도전과 성취감을 느끼는 ‘트리클라이밍’, 자연소리를 활용한 ‘반딧불이 만들기’, 가족의 이야기를 담는 ‘우리 가족 별자리 만들기’ 등이 진행됐다. 특히 아이들은 수달의 서식 환경과 숲 생태를 이해하며 자연 보호의 중요성을 배우고, 학부모와 함께 다양한 체험 활동에 참여하면서 가족 간 소통과 협력의 시간을 가졌다. 구례군 관계자는 “복권기금 녹색사업을 통해 유아와 가족이 숲에서 함께 배우고 즐기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산림복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구례=김귀진 기자 kkkjin@gwangnam.co.kr



13만급 국제크루즈 ‘아도라매직시티호’가 최근 여수엑스포항에 입항한 가운데 화려한 불 날씨 속에 4300여명이 오동도와 이순신광장, 진남관 등 주요 관광지를 비롯해 도심 곳곳에서 다양한 체험과 소비 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여수시청

### ‘아도라 매직시티호’ 여수항 두번째 입항 탑승객 4300명 주요 관광지 관람...지역 상권 ‘활기’

13만급 국제크루즈 ‘아도라매직시티호’가 최근 여수엑스포항에 입항했다. 이번엔 입항한 크루즈선에는 5000여명의 승객과 승무원이 탑승했으며, 화려한 불 날씨 속에 4300여명이 하선해 입항객 대비 하선율은 86%를 기록했다. 이번 입항은 단체 관광객과 함께 자유 여행 형태의 개별관광객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으로, 관광객들은 오동도와 이순신광장, 진남관 등 주요 관광지를 비롯해

도심 곳곳에서 다양한 체험과 소비 활동이 이뤄졌다. 특히 거북선축제 기간과 맞물려 전통문화 체험과 지역 먹거리, 공연 등을 즐기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여수시는 개별관광객 증가에 대응해 이동 편의 제공과 관광 동선 분산을 위해 무료 셔틀버스 6대를 운영하며 주요 거점간 접근성을 높였다. 특히 이순신광장을 중심으로 안전요원

과 통역 인력을 배치해 관광객 안내와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관광안내소 운영, 문화관광해설사 배치, 임시 택시 승강장 운영 등 다양한 수용 태세를 구축해 크루즈 관광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여수를 즐길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이어갔다. 여수시 관계자는 “대규모 크루즈 관광객 유입이 지역 상권과 관광산업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개별관광객 중심의 맞춤형 대응체계를 강화해 여수가 동북아 대표 해양관광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고흥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이 봄을 맞아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요소를 확충하며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사진제공=고흥군청

### 고흥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봄 새단장’

#### 스트레스 완화·면역 증진 휴식·체험 프로그램 추진

고흥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이 봄을 맞아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요소를 확충하며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6일 고흥군에 따르면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은 방문객에게 더욱 풍성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계절 꽃 식재, 감성 포토존 설치, 시원한 경관을 더하는 분수 조성 등 시설을 새롭게 단장했다. 특히 자연과 어우러진 포토존은 가족과 연인 단위 방문객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최근 따뜻한 날씨와 함께 단체 방문객이 증가하면서 숲은 활기를 띠고 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

편백나무가 울창하게 조성된 숲길은 총 8.4km에 달하며, 누구나 편안하게 걸으며 자연을 만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코스로 구성돼 있다.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은 단순한 산책 공간을 넘어 몸과 마음의 회복을 돕는 산림치유와 수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전문 지도사와 함께한 치유의 숲은 방문객에게 더욱 풍성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계절 꽃 식재, 감성 포토존 설치, 시원한 경관을 더하는 분수 조성 등 시설을 새롭게 단장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봄을 맞아 더욱 다양한 즐길 거리와 휴식 공간을 마련했다”며 “방문객들이 자연 속에서 힐링과 추억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와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



장흥군이 국가유산청 주관 ‘2026년 향교·서원 문화유산 활용사업’ 공모에서 ‘자·흥, 나는 향교’ 사업에 선정됐다. 사진제공=장흥군청

### 장흥, 향교서원 문화유산 활용사업 선정

#### 3년 연속...지역경제 활성화·문화 향유 기회 확대 기대

장흥군은 국가유산청 주관 ‘2026년 향교·서원 문화유산 활용사업’ 공모에서 ‘자·흥, 나는 향교’ 사업이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향교·서원 문화유산 활용사업은 전통 교육기관인 향교와 서원에 담긴 정신문화의 본래 가치를 계승하고, 현대적 해석을 더해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 향유 기회 확대 효과를 동시에 확보하는 데

목적을 뒀다. 이번엔 선정된 ‘자·흥, 나는 향교’는 ‘자·흥, 나는 향교’ 사업이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향교·서원 문화유산 활용사업은 전통 교육기관인 향교와 서원에 담긴 정신문화의 본래 가치를 계승하고, 현대적 해석을 더해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 향유 기회 확대 효과를 동시에 확보하는 데



### 곡성,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지원 확대

#### 고사리·두릅 신규 품목 포함

곡성군은 최근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지원 품목 확대와 2026년도 농축산물 최저가격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농·축협 관계자와 농업인 단체, 소관 업무 담당 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군은 지난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신속 작목인 블루베리를 지원 품목에 포함한 데 이어, 올해는 임산물 확대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용역 검토를 거쳐 고사리와 두릅을 신규 지원 품목으로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곡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은 주요 농·축산물의 도매시장가격이 최저가격의 80% 이하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로 현재 쌀, 고추, 옥수수,

딸기, 멜론 등 13개 품목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결정으로 지원 대상 품목은 더욱 확대됐다. 농·축산물 최저가격은 최근 5년간 도매시장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 평균 가격 등을 반영해 곡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곡성군 관계자는 “지원 품목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농가가 가격 하락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가 소득 안정과 경영 안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유빈 기자 hnews1@gwangnam.co.kr